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시와 음악 대구에 스미다	3
첨부파일(1)	3

시와 음악 대구에 스미다

작성일 2023.03.24 17:06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80

첨부파일(1)  20230324_162310.png 8 hit/817.2 KB [다운로드](#)



“시와 음악 대구면에 스며들었다”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추진중인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시와 음악, 대구에 스미다'는 제목 그대로 주민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 소통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강진읍은 5회 진행되고, 10개 면은 매달 한 차례씩 총 15회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김충심씨가 여는시로 이재 작가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낭송하며 시작됐다. 이어 박종휘씨가 꽃길 등 2곡을 색소폰으로 연주했다. 이어 이야기가 있는 삶 시간에는 청자축제를 맞아 청우요 윤윤섭 작가가 출연해 강진에 정착하며 청자를 만들기까지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며 잔잔한 감동을 전해 주었다.

이어 양한나, 양지선, 권유주씨가 바이올리노가 비올라, 첼로를 함께 '헝가리 무곡 5번' 등 클래식 2곡을 연주하며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러다. 이어 베트남 이주여성 윤지혜씨가 자신의 딸 공지영양과 함께 무대에 올라 광재구 시인의 '철석남'이란 시를 낭송해 박수를 받았다.

행사의 마지막은 김은영 재즈보컬리스트가 출연해 노래를 부르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찾아가는 시문학파기념관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화요일밤의 초대손님' 타이틀로 총 83회를 지역민과 함께 해오다, 군민과의 보다 활발한 소통과 지역 맞춤형 진흥을 위해 이름을 바꿨다.

시문학파기념관의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민의 단기 일자리 창출 기여와 시 문학 예술인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 기획부터 구성, 연출까지 전체 과정을 지역민이 주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자기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이석우 시문학파기념관장은 "이번 행사로 대구면민의 문학적 소양이 높아졌길 기대한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진군민의 시문학·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토대로 시문학파기념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준석 기자

목록

GANGJIN

Web Contents

